

미·중의 AI 전략과 한미동맹

AI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mplications for the ROK-U.S. Alliance

김성한 (고려대 경제기술안보연구원장)

<초록>

AI 경쟁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 개발 경쟁이 아니라 기술을 국가 역량으로 전환하는 혁신과 확산의 시스템 경쟁이다. 미국은 OpenAI, NVIDIA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과 연구 생태계를 바탕으로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제조업 기반의 약점을 안고 있다. 반면 중국은 강력한 제조업과 국가 주도의 정책을 활용해 AI를 산업과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는 데 강점을 보인다. 이러한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은 반도체, 첨단 제조업,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국의 혁신 역량과 현실 세계의 확산을 연결할 수 있는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HBM, AI 데이터센터, 원전, 로봇,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AI·반도체·에너지·첨단기술 분야를 포괄하는 기술동맹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은 AI 시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Abstract>

AI competition is not merely a race to develop superior technologies. It is a systemic competition over the ability to transform technological innovation into national power through effective diffusion and implementation. The United States leads in AI innovation, supported by world-class firms such as OpenAI and NVIDIA, as well as a dynamic research ecosystem. However, it faces structural challenges stemming from the erosion of parts of its manufacturing base. China, by contrast, leverages its vast manufacturing capacity and state-driven policies to rapidly diffuse AI technologies across industry, government, and society. Amid this U.S.-China competition, Republic of Korea is emerging as a pivotal country capable of connecting American innovation with large-scale real-world deployment through its strengths in semiconductors, advanced manufacturing, and digital infrastructure. Korea's role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areas such as high-bandwidth memory (HBM), AI data centers, nuclear energy, robotics, and defense industries. Consequently, the U.S.-ROK alliance should evolve beyond a traditional military alliance into a broader technology alliance encompassing AI, semiconductors, energy, and other advanced technologies. By doing so, Korea can position itself as a key nation to sustain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본 글에 게재된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에 바탕을 둔 것으로, 경제기술안보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AI 시대의 도래

인류는 몇 차례의 거대한 기술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왔다. 증기기관은 산업혁명을 촉발했고, 전기는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으며, 인터넷은 정보혁명을 가져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바로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이다.

AI는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 아니다. AI는 지식 노동을 자동화하고, 국가의 정보처리 능력을 증폭시키며, 군사적 의사결정과 경제 운영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이다. 과거 산업혁명이 육체노동을 기계화했다면, AI 혁명은 인지 노동(cognitive labor)을 자동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¹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다. AI는 경제, 산업, 안보, 외교,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이다. 증기기관이나 전기처럼 특정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생산 방식과 군사력, 나아가 국제질서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따라서 AI를 둘러싼 경쟁은 더 이상 기업이나 산업 간 경쟁의 차원을 넘어 국가전략의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 중 누가 AI 경쟁에서 승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주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종종 AI 경쟁의 본질을 흐린다.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누가 먼저 범용인공지능(AGI)을 완성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기술 레이스로 이해한다. 하지만 실제로 AI 경쟁의 핵심은 기술 자체보다 기술을 국가 역량으로 전환하는 능력에 있다. AI는 반도체로 구현되고, 데이터센터로 구축되며, 공장과 물류체계, 군사 플랫폼과 도시 인프라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 따라서 AI 경쟁은 알고리즘 경쟁인 동시에 제조 경쟁이고, 공급망 경쟁이며, 제도 경쟁이다. 다시 말해 AI 경쟁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AI 경쟁을 분석해 보면, 한국의 안보 전략에 중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1) Erik Brynjolfsson, “The Turing Trap: The Promise & Peril of Human-Like Artificial Intelligence,” Daedalus Vol.151, No. 2, 2022, pp. 272-287.

□ 미국과 중국의 AI 전략 차이

미국과 중국은 AI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다르다. 미국의 전략은 혁신(innov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늘날 세계 AI 혁신의 중심은 단연 미국이다. OpenAI, Google DeepMind, Anthropic, Microsoft, Meta, NVIDIA 등 세계 최고의 AI 기업들이 미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최첨단 언어모델과 알고리즘 개발에서도 미국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위는 단순히 AI 모델 개발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NVIDIA를 중심으로 한 첨단 AI 반도체 생태계와 초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능력은 AI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이다. 현재 AI 경쟁에서 컴퓨팅 역량은 과거 산업혁명 시기의 석탄과 철강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한 전략 자산이 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유치 능력, 개방형 연구 생태계, 벤처투자 환경 역시 미국의 강점이다.

미국 내 AI 담론의 상당 부분은 AGI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간 수준의 범용지능을 누가 먼저 구현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AGI가 무엇인지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둘째, 미국이 중국보다 AGI를 몇 개월 먼저 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략적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셋째, AGI 자체를 경쟁의 종착점으로 보는 건 잘못된 가능성이 있다. 기술은 발명되는 것만으로 힘을 갖지 않는다. 기술은 현실 세계에 구현될 때 비로소 전략적 영향력을 갖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은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이지만 제조업 기반은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 AI는 결국 로봇과 공장, 전력망과 무기체계로 구현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확산 단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AI 경쟁을 AGI 달성 경쟁으로 보지 않는다. 중국의 관심은 이미 존재하는 AI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제조 현장과 도시 인프라, 행정체계, 감시체계, 군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있다. 즉 혁신(innovation)보다 확산(diffus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강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업 기반이다. 여기에 방대한 데이터와 국가 주도의 장기투자, 강력한 정책 집행력이 결합되어 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마이클 프로먼 회장이 지적했듯이, AI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뛰어난 모델을 먼저 개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² 오히려 기술정치학자 제프리 딩(Jeffrey Ding)이 강조한 바와 같이, AI를 산업과 사회 전반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산·적용하느냐가

2) Michael Froman,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AI Rac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October 10, 2025,

장기적인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³ 중국은 최고 성능의 AI 모델을 보유하는 것보다 AI가 실제 생산성과 국가 역량을 얼마나 증가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자율 물류, 디지털 행정, 무인전투체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를 빠르게 적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중국 역시 한계를 갖고 있다. 미국의 수출통제로 인해 첨단 반도체 접근에 제약이 있으며, 권위주의 정치체제로 인한 국제적 신뢰 부족과 규범 경쟁력의 한계도 존재한다. 중국식 AI 거버넌스는 다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채택하고 싶어 하는 모델이 되기 어렵다.

결국 AI 경쟁은 단순한 기술 레이스가 아니다. 혁신과 확산, 제조와 공급망, 제도와 규범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 시스템 경쟁으로 봐야 한다.

□ 송나라의 멸망과 영국의 산업혁명: 역사적 교훈

중국 송나라의 흥망과 영국 산업혁명을 비교해 보면 오늘날 미·중 경쟁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송나라(960-1279)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앞선 상업·기술 국가였다. 종이 화폐의 도입, 인쇄술의 발전, 화약과 나침반의 활용 확대 등 수많은 혁신을 이끌었다. 경제 규모와 상업 활동, 도시화 수준에서도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송나라는 세계 최초의 혁신 국가에 가까웠다. 그러나 송나라는 319년간 존속한 끝에 결국 금나라와 몽골제국에 의해 멸망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술을 국가 역량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송나라는 경제와 기술에서는 앞서 있었지만, 이를 군사력과 외교적 능력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기술혁신 자체에는 성공했지만, 제조와 동원 그리고 전략화 능력에서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는 기술의 혁신만으로 패권을 쟁취하거나 유지할 수는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송나라 멸망 후 700-800년이 지나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세계 패권국으로 부상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일반적으로 1760년경부터 1840년경까지의 제1차 산업혁명과 1870년경부터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14년까지의 제2차 산업혁명으로 구분된다. 제1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방적기와 증기기관, 제철기술, 철도 등 혁신적 기술이

3) Jeffrey Ding, Technology and the Rise of Great Powers: How Diffusion Shapes Economic Compet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4).

등장하면서 영국이 세계 최초의 산업국가로 부상하였고, 생산성과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이어 제2차 산업혁명기에는 전기, 화학, 내연기관, 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산업 구조가 한층 고도화되었다. 산업혁명은 영국이 19세기 세계 패권국으로 자리 잡는 결정적 기반을 제공했으며, 현대 산업사회의 출발점이 되었다.

역사가들 상당수가 산업혁명의 원인을 증기기관 발명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합적인 조건들이 존재했다. 영국은 이미 방직업과 금속산업, 조선업 등 제조업 기반을 축적하고 있었으며, 금융과 보험, 법치주의를 통해 기술혁신을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⁴ 증기기관은 출발점이 아니라 촉매제였다. 영국의 진정한 강점은 기술을 제조업으로 연결하고, 제조업을 군사력과 해군력으로 연결하며, 이를 다시 국제질서 구축으로 전환하는 능력이었다. 즉 혁신을 시스템의 힘으로 바꾸는 능력이 영국을 패권국으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비교는 오늘날 미·중 AI 경쟁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AI 경쟁의 핵심은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했는가가 아니다. 누가 기술을 생산력과 군사력, 국제적 영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오늘날 미국은 혁신을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전환해 2차 대전 직후 패권국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이후 혁신과 확산을 거듭해 오며, 패권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만났다. 혁신의 수준은 미국에 뒤질지 몰라도 (미국이 오래전 포기한) 제조업 능력을 바탕으로 확산의 가속화를 이뤄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은 AI 시대를 맞아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혁신에 강했으나 확산에 실패한 송나라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제조업의 신화를 기록한 미국의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과거 산업혁명으로 올라선 영국의 길을 계속 달릴 수 있다.

□ 한국의 전략적 가치 상승

미중 AI 경쟁은 어느 한쪽의 승리를 예단하기엔 구조적 차이점이 크다. 결국 미국 중심의 기술 생태계와 중국 중심의 기술 생태계가 병존하고, 국가들은 각각의 공급망과 표준 체계 속에서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의

4) David S. Landes, *The Unbound Prometheus: Technological Change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from 1750 to the Pres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pp. 40-65; Joel Mokyr, *The Enlightened Economy: Britain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1700-185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pp. 83-117; Robert C. Allen,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in Global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67-103.

혁신적 기술을 현실 세계에 구현해 줄 동맹국 기업들을 찾아 첨단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자립적 기술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중견국들의 전략적 중요성은 오히려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제조 능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국가들은 양대 블록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 부상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된다. AI 시대의 대한민국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가진 혁신 역량과 중국이 보여주는 제조·확산 능력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역량 역시 세계 정상급 수준이다. 동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AI 시대에 한국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돋보이게 만든다. 오늘날 미국은 AI 혁신의 중심 국가이다. 그러나 AI 혁명이 현실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AI는 결국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로봇과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시스템과 무인 전투체계로 구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AI는 물리적 세계 속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최근 NVIDIA의 최고경영자 젠슨 황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언론은 이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네이버 등과의 사업 협력 차원에서 주로 다루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젠슨 황의 방한은 미국의 AI 혁신이 한국의 제조 역량과 공급망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오늘날 AI 산업의 핵심은 고대역폭메모리(HBM)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첨단 패키징 기술, 미래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 시스템 역시 한국 제조업의 역량 없이는 구현되기 어렵다. 미국이 AI 혁신의 중심 국가라면, 한국은 AI 혁신을 산업과 안보의 힘으로 전환하는 핵심 국가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이 AI의 두뇌라면, 한국의 반도체와 제조업은 AI의 몸체를 구성한다. AI 시대의 전략 경쟁은 두뇌만으로 승리할 수 없으며, 이를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생산 역량이 함께 결합될 때 비로소 국가 경쟁력이 완성된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가진다. 미국은 AI 시대를 주도하고 있지만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다. AI 기술을 실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조 기반과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요하다.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미 전략은 단순한 기술협력의 수준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AI 전략이 가진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반도체와 첨단 제조업, 배터리와 원전, 로봇과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AI 생태계의 필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AI의 확산은 반도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초대형 데이터센터와 AI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원전, 전력망,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AI 경쟁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원전 건설 및 운영 역량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로서 AI 시대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현실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중국과의 전면적 단절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핵심 기술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영역에서는 원칙을 유지하되, 비전략적 영역에서는 관리된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미 AI 동맹을 통한 자유주의 국제질서 주도

AI 경쟁의 본질은 누가 먼저 도착했는가에 있지 않다. 누가 더 넓게 확산시키고, 누가 더 효과적으로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가에 있다. 미국은 혁신에 강하다. 중국은 확산에 강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혁신과 확산을 연결할 수 있는 드문 국가이다. 이것이 바로 AI 시대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이다.

특히 AI는 한미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축이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동맹의 의미도 변화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산업, 바이오산업, 첨단 제조업은 더 이상 경제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들은 곧 국가안보이고 군사력이며 국제질서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이제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미국의 혁신 역량과 한국의 제조 역량이 결합할 때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AI 경쟁에서 지속 가능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한국은 그것을 산업과 군사, 사회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양국의 협력은 단순한 경제협력이 아니라 미래 국제질서를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협력이 되어야 한다.

역사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송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상업 역량을 보유했지만 그것을 국가 역량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고, 영국은 기술혁명을 제조업과 군사력, 국제질서 구축으로 연결함으로써 세계 패권국으로 부상했다. AI 시대 역시 마찬가지다.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확산시키고 국가 역량으로 전환하는 능력이다.

오늘날 미국은 혁신의 중심에 서 있고, 중국은 확산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혁신과 확산을 연결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국가(indispensable nation)’이다. 한국이 반도체와 첨단 제조업,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기술동맹을 심화시킨다면, AI 시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 BIO



김성한

- 現)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겸 경제기술안보연구원장
- 現)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
- 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 정치학 박사

Email: ksunghan@korea.ac.kr

김성한(金聖翰) 교수는 현재 고려대 경제기술안보연구원장 및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2022-2023)으로 봉직했다. 고려대 국제대학원장(2017-2021),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2013-2021), 한국아태협력위원회 회장(2014-2017), 다보스포럼 WMD 분과위원장(2013-2015), 외교통상부 2차관(2012-2013), 외교안보연구원 교수(1994-2007)를 역임했다. 미국 텍사스대(오스틴)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저서 및 논문으로는 『미국외교정책』(공저),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From Blood Alliance to Strategic Alliance”, “The End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Day After: ROK-US Coope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Denuclearizing North Korea: Time for Plan B” 등 다수가 있다.

Sung-han KIM

- (Current) Professor Emeritus and Chief Executive Director, Institute for Economy, Technology, and Security, Korea University
- (Current) Adjunct Senior Fellow,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or to the President
- Ph.D. i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Professor Sung-han Kim currently serves as Chief Executiv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Economy, Technology, and Security at Korea University and Adjunct Senior Fellow a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He previously served as National Security Advisor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2023). Dr. Kim has held numerous academic and public service positions, including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Korea University (2017-2021), Director of the Ilmin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2013-2021), President of the ROK National Committee of the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2014-2017), Chairperson of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orking Group at the World Economic Forum (2013-2015), Second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2-2013), and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1994-2007). Dr. Kim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His publications include *U.S. Foreign Policy* (co-author), as well as numerous scholarly articles such as “*U.S. Global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From Blood Alliance to Strategic Alliance*,” “*The End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Day After: ROK-U.S. Coope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and “*Denuclearizing North Korea: Time for Plan B*.”